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Daily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곡물 시장 영향

Strategist 오승훈
02.769.3803
oshoon99@daishin.com

연구원 김민경
02.769.3022
mkkim@daishin.com

2014년 03월 05일 수요일

KOSPI

1954.11 ▼-10.58 (-0.54%)

	2/28	3/03	3/04
종가	1979.99	1964.69	1954.11
등락	1.56	-15.30	-10.58
등락폭(%)	0.08	-0.77	-0.54
거래량(백만주)	251	221	199
거래대금(십억원)	4,705	3,396	3,030
시가총액(십억원)	1,132,546	1,123,876	1,117,824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531.54 ▲1.68 (0.32%)

	2/28	3/03	3/04
종가	528.96	529.86	531.54
등락	0.59	0.90	1.68
등락폭(%)	0.11	0.17	0.32
거래량(백만주)	317	310	288
거래대금(십억원)	1,723	1,554	1,761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Global Radar ▶ 3p 참고

Strategist 오승훈 02.769.3803 oshoon99@daishin.com
연구원 김민경 02.769.3022 mkkim@daishin.com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병력 철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진정 국면에 진입. 군사적 충돌, 서유럽의 에너지 수급 불안, 곡물 가격 급등 등 초기에 모든 리스크를 반영한 금융시장 불안도 완화될 것. 다만 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장기적 관점 필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5월 25일 예정된 대선 또한 리스크 요인. 최근 격화된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수출량 급감을 우려해 급변동한 곡물 가격은 정상화 과정 거칠 것으로 예상. 2월 초 발표된 중국의 식량정책으로 중국 곡물 수입이 증가한다면 곡물가 상승은 유효할 것.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통로인 우크라이나의 정국혼란은 가스 수요처인 유럽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낳음. 그러나 러시아 금융시장 여건 악화, 주변국들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하락으로 영향은 제한적

증시일정 ▶ 2p

파생시황 ▶ 8p

Chart Alarm ▶ 9p

매매 및 자금동향 ▶ 16p

4일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틀 연속 동반 매도에 전일보다 0.54% 하락한 1954.11에 마감

주간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4 獨 2 월 IFO 기업환경 (전기치:110.6, 발표치:111.3)	25 美 12 월 CS 주택가격 (전기치:0.88%, 발표치:0.76%) 獨 4Q GDP 성장률(확정치) (잠정치:1.4%, 발표치:1.4%)	26 美 1 월 신규주택판매 (전기치:427K, 발표치:468K)	27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치:334K, 발표치:348K) 美 1 월 내구재주문 (전기치:-5.3%, 발표치:-1.0%) 스페인 4Q GDP 성장률(확정치) (잠정치:-0.1%, 발표치:-0.2%) 韓 1 월 경상수지 (전기치:6.41B, 발표치:3.61B)	28 美 4Q GDP 성장률(수정치) (잠정치:3.2%, 발표치:2.4%) 美 1 월 미결주택매매 (전기치:-5.8%, 발표치:0.1%) EMU 2 월 소비자물가 예상 (전기치:0.7%, 발표치:0.8%) 韓 1 월 산업생산 (전기치:2.9%, 발표치:-3.8%) 韓 1 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전기치:101.5, 발표치:101.5)
3 美 2 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치:51.3, 예상치:52.0) 美 1 월 개인소비 (전기치:0.4%, 예상치:0.1%) 美 1 월 개인소득 (전기치:0.0%, 예상치:0.2%) 美 2 월 자동차판매 (전기치:15.2M, 예상치:15.4M) 中 2 월 HSBC 제조업 PMI (전기치:49.5, 예상치:48.5)	4 韓 2 월 소비자물가 (전기치:1.1%, 예상치:1.1%) 美 상원, 연준 부총재 후보 청문회	5 美 2 월 ADP 취업자변동 (전기치:175K, 예상치:158K) 美 2 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치:54.0, 예상치:53.5) EMU 1 월 소매판매 (전기치:-1.0%, 예상치:-0.2%) EMU 4Q GDP 성장률(잠정치) (속보치:0.5%, 예상치:0.5%) 美 베이지북	6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치:348K, 예상치:338K) 美 1 월 제조업수주 (전기치:-1.5%, 예상치:-0.5%) ECB 회의	7 美 2 월 비농업취업자변동 (전기치:113K, 예상치:150K) 美 2 월 실업률 (전기치:6.6%, 예상치:6.6%) 美 1 월 무역수지 (전기치:-38.7B, 예상치:-39B) 獨 1 월 산업생산 (전기치:2.6%, 예상치:3.9%)
10 EMU 3 월 센틱스투자지수 (전기치:13.3, 예상치:--) 日 4Q GDP 성장률(확정치) (잠정치:1.0%, 예상치:--) 8 일 中 2 월 수출 (전기치:10.6%, 예상치:9.8%) 中 2 월 수입 (전기치:10.0%, 예상치:8.7%)	11 美 12 월 JOLTs 신규구인 (전기치:3.99M, 예상치:--)	12 EMU 1 월 산업생산 (전기치:0.5%, 예상치:--) 韓 2 월 실업률 (전기치:3.2%, 예상치:--)	13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2 월 소매판매 (전기치:-0.4%, 예상치:--) 中 2 월 산업생산 (전기치:9.7%, 예상치:9.5%) 中 2 월 고정자산투자 (전기치:19.6%, 예상치:19.4%) 中 2 월 소매판매 (전기치:13.6%, 예상치:13.6%) 韓 금통위	14 美 2 월 생산자물가 (전기치:0.2%, 예상치:--) 美 3 월 소비심리지수 (전기치:81.6, 예상치:--) EMU 4Q 고용증가 (전기치:-0.8%, 예상치:--) EMU 무디스 신용등급평가
17 美 2 월 산업생산 (전기치:-0.3%, 예상치:--) 美 2 월 설비가동률 (전기치:78.5%, 예상치:--)	18 美 2 월 소비자물가 (전기치:0.1%, 예상치:--) 美 2 월 주택착공건수 (전기치:880K, 예상치:--) 美 2 월 건축허가건수 (전기치:937K, 예상치:--) 美 FOMC	19 日 2 월 수출 (전기치:9.5%, 예상치:--) 日 2 월 수입 (전기치:25.0%, 예상치:--) 美 FOMC	20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2 월 기존주택판매 (전기치:4.62M, 예상치:--) 美 2 월 경기선행지수 (전기치:0.3%, 예상치:--) EU 정상회담	21 EU 정상회담
24 EMU 3 월 복합 PMI 獨 3 월 제조업 PMI 中 3 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25 美 1 월 CS 주택가격 (전기치:0.76%, 예상치:--) 美 2 월 신규주택판매 (전기치:468K, 예상치:--) 獨 3 월 IFO 기업환경 (전기치:111.3, 예상치:--)	26 美 2 월 내구재주문 (전기치:-1.0%, 예상치:--) 韓 4Q GDP 성장률(확정치) (잠정치:3.9%, 예상치:--)	27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4Q GDP 성장률(2 차수정치) (수정치:2.4%, 예상치:--) 美 2 월 미결주택매매 (전기치:0.1%, 예상치:--)	28 美 2 월 개인소비 美 2 월 개인소득 韓 2 월 산업생산 (전기치:-3.8%, 예상치:--) 韓 2 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전기치:101.5, 예상치:--)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Global Radar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곡물 시장 영향

Strategist 오승훈 769-3803 oshoon99@daishin.com
연구원 김민경 769-3022 mkkim@daishin.com

진정국면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일반적으로 악재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의 패턴은 가능한 모든 위험을 초기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후 과도했던 반응이 완화되고 악재에 적응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주 초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올 불확실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그림 1,2]. 군사적 충돌 가능성, 서유럽의 에너지 수급, 곡물가격 급등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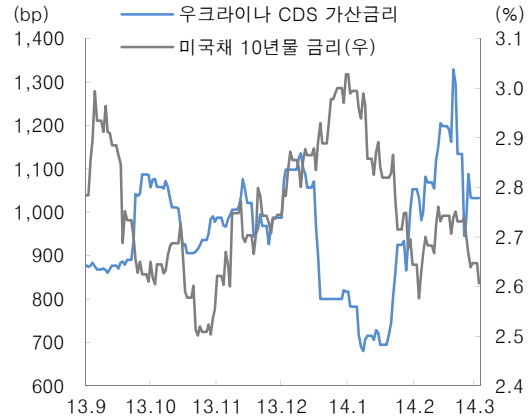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 전개 과정

- 2013.11 우크라이나 정부, EU와의 경제협력 보류. 반정부 시위 시작
- 2014.01 시위 규제 강화법 통과. 시위 격화로 21일 사망자 발생하자 28일 법안 폐지
- 2014.02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 충돌(18일 1차, 20일 2차).
  현재까지 유혈 충돌로 약 131명 사망.
  21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지역으로 도피
  22일 의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하고 5월 25일 대통령 선거 실시 결정

*러시아 군사 개입과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위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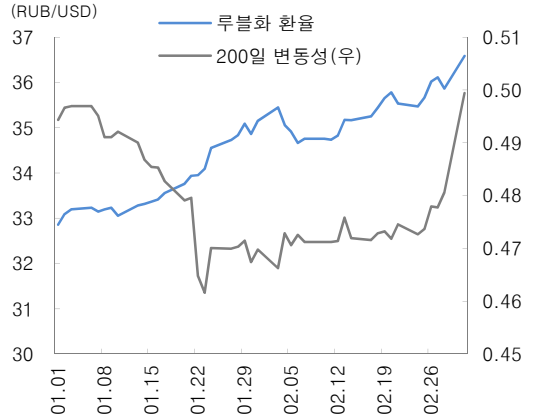
2014년 3월 1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일대를 장악하고 러시아 서부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국내 정치문제에 국한되었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다. 금융시장 충격은 러시아가 가장 컸고 동유럽, 서유럽이 뒤를 따랐다.

그림 1. **우크라이나 정국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연초 이후 러시아 루블화 가치 급락**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진정 국면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3월 4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훈련군을 철수한다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로 금융시장은 안정을 회복했다. 러시아의 일보 후퇴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5월 25일 대선까지 정치불안이 지속될 것이며, 디폴트 위험을 막고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하는 경제적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반영되었던 극단적인 위험은 점차 완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한다. 이전 지정학적 위험이 그러했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데서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증시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곡물과 에너지 가격에 영향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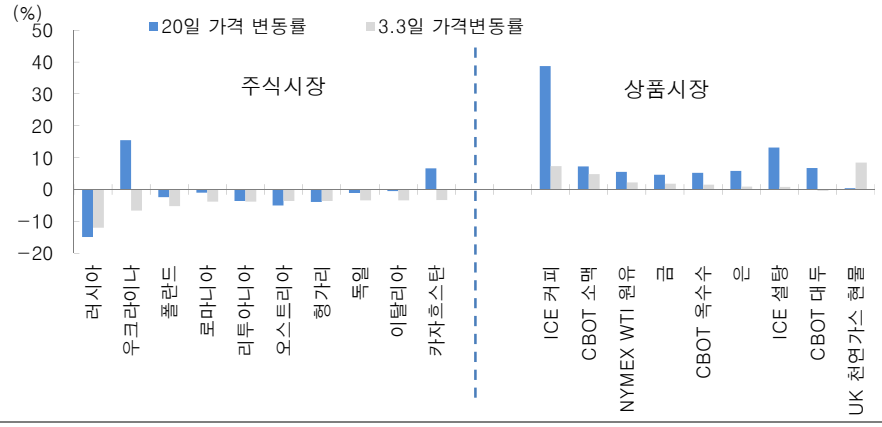
*경제지원 문제로 관심 이동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치적문제와 유동성리스크, 지급불능 위험이 중첩되어 있다.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적 대립이 진정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경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5년까지 350억달러의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남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선이라는 정치일정과 맞물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높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

[그림 3]은 3월 3일 금융시장의 반응을 요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러시아, 동유럽의 주가와 환율 하락폭이 컸고 상품가격 상승률이 컸다. 우크라이나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금융시장보다 곡물, 에너지시장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노출도가 러시아와 동유럽에 한정된 반면 곡물은 중동/북아프리카/아시아, 에너지는 서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3월 3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곡물시장에 주는 영향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이자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원자재 수송 통로이다. 농업이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012/13년 곡물 수출량은 3,190만톤으로 세계 6위이다[그림 5]. 특히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이 48%로 농업생산의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요 곡물 수입국인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로의 곡물 수출 유지가 중요하다.

이번 우크라이나 발 금융시장 불안에서 가장 큰 변동이 나타난 것은 곡물가격이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 말 대비 밀 선물에 대한 비상업순매도폭이 축소되었고 가격은 7.8% 상승했다[그림 4]. 옥수수 선물도 2월 이후 포지션이 매수전환해 5.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변동했던 가격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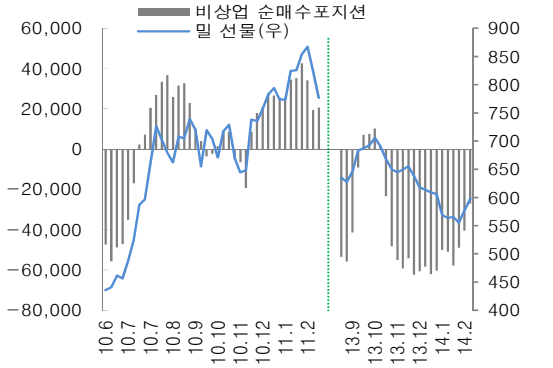
다만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물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부터 이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2월 초 발표된 중국의 식량정책이 곡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곡물생산 목표를 2013년 수확량인 6.2억톤보다 한참 낮은 5.5억톤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기존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중국의 곡물 수입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곡물가격의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중동 재스민 혁명의 계기가 된 곡물가격 급등

곡물 수급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거 곡물파동 경험에 기인한다. 2010년 흑해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곡물 생산이 어려워지자 8월 러시아는 연말까지 수출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는 10월 수출 쿼터를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연말 국제 밀과 옥수수 선물가격은 수출제한조치가 있기 전과 비교해 각각 63%, 73% 급등했다. 문제는 곡물가격 급등이 주요 수입국인 중동,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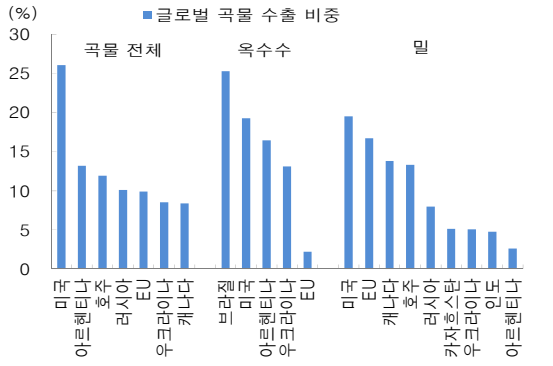
2010년 곡물파동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모잠비크 정부가 빵값을 30% 인상하자 이에 반발한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튀니지에서는 고물가, 정권부패에 대항한 시위(재스민 혁명)가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도 주식인 아이쉬 가격인상과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이 합쳐져 민중저항이 시작돼 반정부 시위가 중동,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즉, 이번 사태로 곡물가 급등이 지속될 시 해당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과 이로 인한 정치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림 4. 밀에 대한 투기적 매도 포지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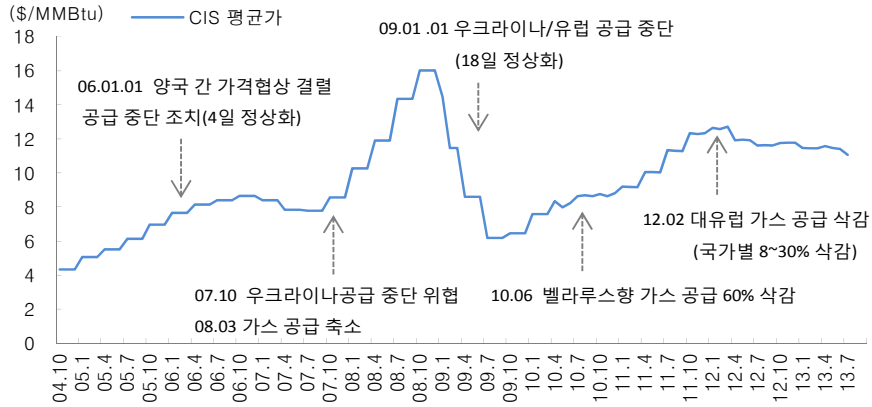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유럽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자료: IG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 가격**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천연가스 공급 불안 영향 제한적일 것

친EU-친러시아 세력 간 내분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정국 혼란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천연가스) 독립 문제로 귀결돼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U와 함께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17.6%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50%에 달해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 인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2일,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 가스프롬은 가스대금 체불액 15.4억달러를 상환하지 않을 시 천연가스 공급가 30% 인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6]은 러시아 가스의 유럽 평균 공급가이다. [그림 6]을 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급감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과거 러시아와 수입국 간 분쟁 이후 가격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양국 분쟁은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의 공급 불안으로 이어져왔다. 과거 2006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으로의 가스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했다. 2009년 1월 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가스대금 미지급과 가격 협상이 결렬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유럽행 가스를 유용했다고 비난하며 7일부터 유럽행 가스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스 소비량의 약 1/4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 각국에서 가스부족사태가 발생하자 EU의 중재로 13일 공급이 재개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격 인상에 대응해 파이프라인 통관료 인상을 시도할 것이고 통관료 인상부담은 유럽 수요자들에게 가중되어 유럽지역 공급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악화돼 공급 중단에 이를 경우 우크라이나 송유관을 통과해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의 가스 부족이 우려된다.

다만 현재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전략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러시아의 금융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 주변국들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3일 러시아 MICEX지수는 가스프롬 주가 하락에 따라 12% 하락하며 2008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루블화 환율은 연초 이후 11.3% 급등했다. 3일 있었던 중앙은행의 한시적인 기준금리 인상 조치(기존 5.5%에서 7%)는 러시아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디폴트 위험에 처할수록 현지 기업 및 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 러시아 은행들(작년 11월 기준 채무액 280억달러, Tier 1자본의 27%)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09년 석유공급중단 경험으로 가스 수요국들은 2개월 이상의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때문에 과거와 달리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분쟁을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미루어 보면 향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친EU정부의 수립이다. 러시아가 12월 제공하기로 약속한 150억달러 차관의 2차분 20억달러 지원을 보류한 현 시점에서 향후 우크라이나는 EU, IMF 등 서부세력의 원조로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고, 5월 25일 예정된 총선에서 친EU 성향의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파생시황

▶ 선물 시장

선물거래동향

구분	3월 선물	6월 선물	KOSPI200	KOSPI
시가	255.25	256.75	254.9	1954.58
고가	255.85	257.2	256.22	1963.56
저가	254.65	256.2	254.52	1952.61
종가	255.85	257	254.78	1954.11
전일대비	0	-0.4	-1.51	-10.58
(%)	0	-0.16	-0.59	-0.54
거래량(계약)	109,078	550	50,745	197,609
거래대금(백만)	13,918,739	70,580	2,403,407	3,036,204
미결제약정	113,497	7,004		
전일대비	-4218	2486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지수 추이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괴리도

구분	이론가격	괴리율	종가Basis	평균Basis
최근월물	254.96	0.18	1.07	0.53
차근월물	256.63	0.19	2.22	2.28

스프레드

구분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J3J6S	1.50	-0.05	3553
J3J9S	2.85	2.85	15

프로그램매매동향

(단위:백만원,%)

구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전체			비중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02/28	62,045	29,609	-32,437	1,118,662	1,387,059	268,397	1,180,707	1,416,668	235,960	27.39
03/03	78,607	10,977	-67,630	842,764	730,353	-112,411	921,370	741,330	-180,040	24.90
03/04	10,041	25,287	15,246	616,235	591,280	-24,955	626,276	616,567	-9,710	20.34

옵션거래동향

(단위: 계약,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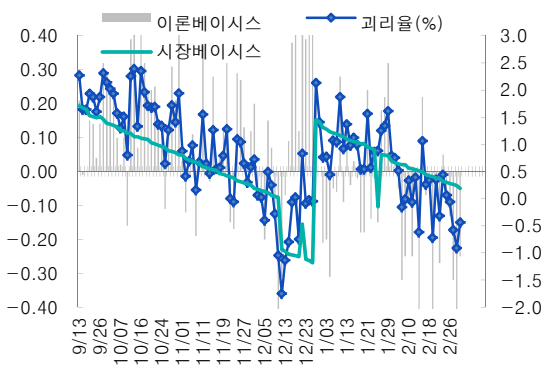
구분	CALL	PUT	합계	P/C Ratio 당일
거래량	582,299	672,669	1,254,968	1.16
거래대금	222,907	273,683	496,590	1.23
미결제약정	423,863	455,638	879,501	1.07
내재변동성	14	14	14	0.97

역사적 변동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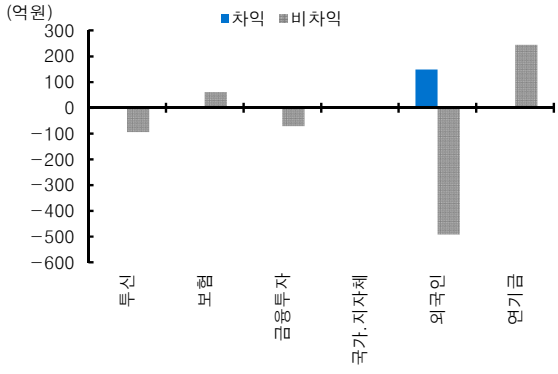
구분	당일	52w High	52w Low
20일	19.47	26.95	7.87
30일	20.09	26.05	8.18
60일	21.53	23.55	10.82
90일	21.20	21.20	11.22

현선물 베이시스 추이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전일 주체별 프로그램 매매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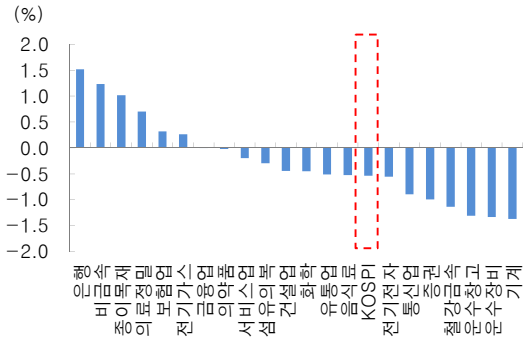
Chart Alarm

01. 주가 등락률

- 4일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틀 연속 동반 매도에 전일보다 0.54% 하락한 1954.11에 마감
- 외국인은 1462억원, 기관은 427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1750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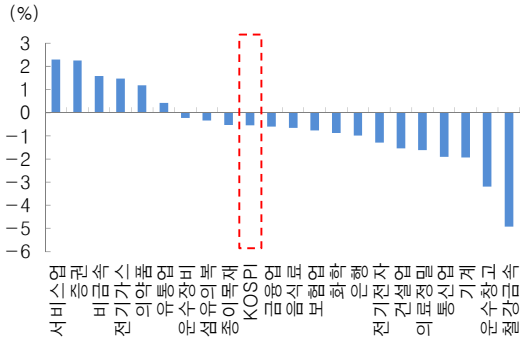
▶ 국내 증시

전일 업종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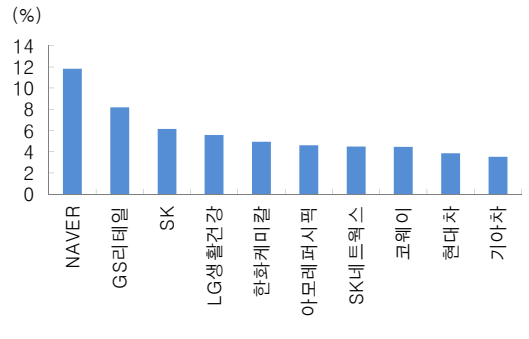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업종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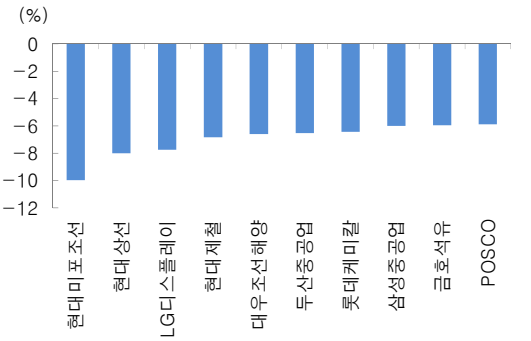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대형주 상승률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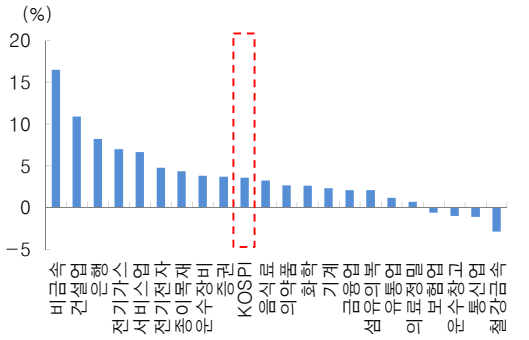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대형주 하락률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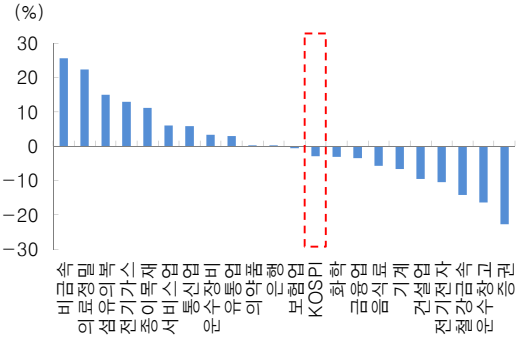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최근 1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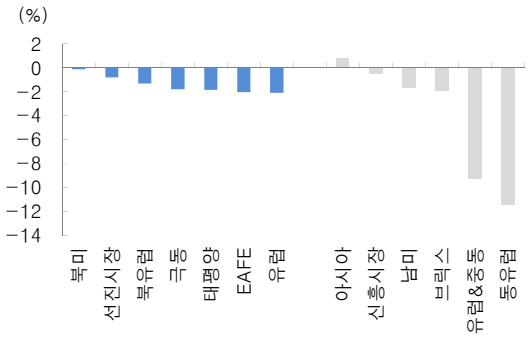
연간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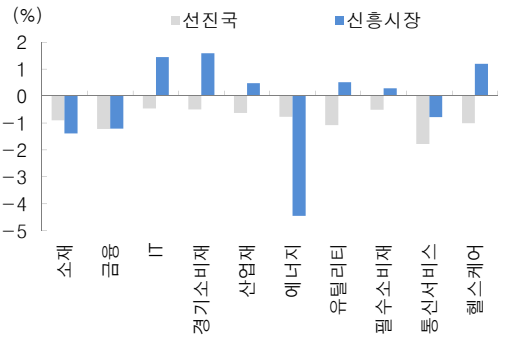
▶ 해외 증시

최근 5일간 MSCI 지역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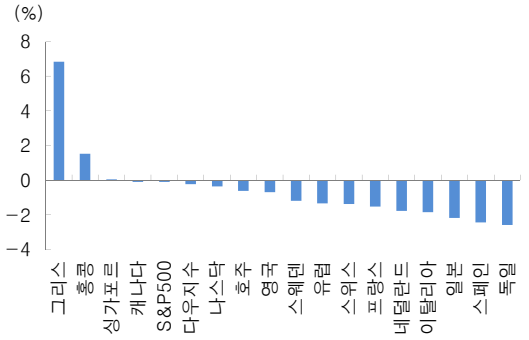
주: EAFE는 유럽, 호주, 극동아시아 지역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MSCI 산업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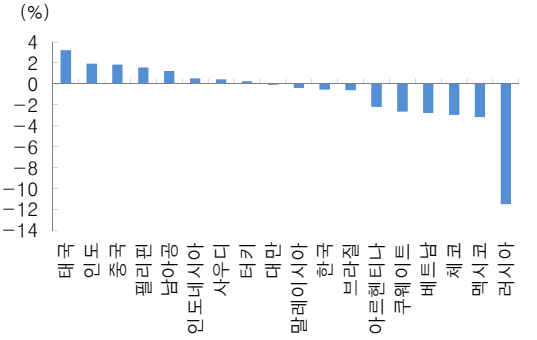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선진국 주요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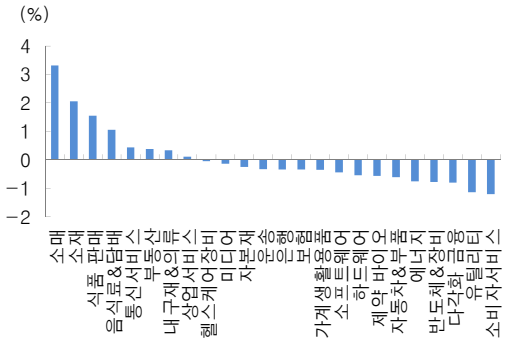


최근 5일간 신흥시장 주요국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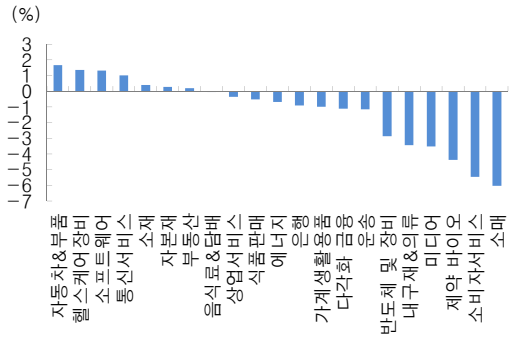
주: 그리스(ASE), 스페인(IBEX), 싱가포르(STI), 홍콩(HIS), 독일(DAX), 캐나다(S&P/TSX), 이탈리아(MIB), 프랑스(CAC), 유럽(SX5P), 호주(AS51), 네덜란드(AEX), 인도(SENSEX), 사우디(SASEIDX), 필리핀(PCOMP), 태국(SET), 베트남(VNINDEX), 쿠웨이트(KWSEIDX), 인도네시아(JCI), 브라질(BOV), 한국(KOSPI), 아르헨티나(MERVAL), 멕시코(MEXBOL), 말레이시아(KLCI), 터키(XU100), 남아공(TOP40), 중국(SHCOMP), 대만(TWSE), 체코(PX), 러시아(RTSI$)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미국 증시의 업종지수 등락률



주: S&P500의 업종 지수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중국 업종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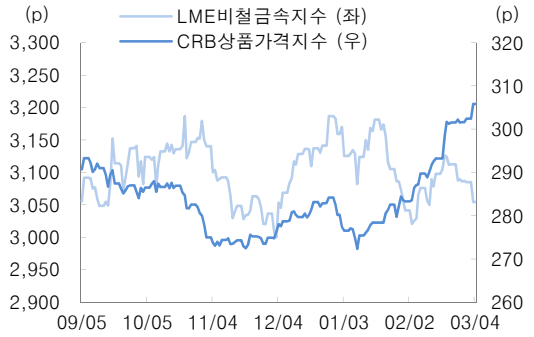


주: 상해 A시장의 종목들로 구성된 S&P/CITIC 300의 업종 지수임
자료: Bloomberg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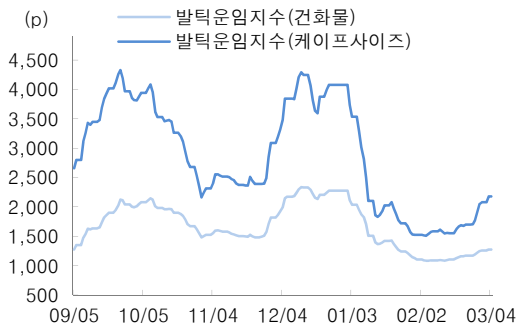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2.3% 상승한 104.92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값은 4월 인도분이 전날 종가보다 2.2% 오른 온스당 1350.30달러에 거래를 마침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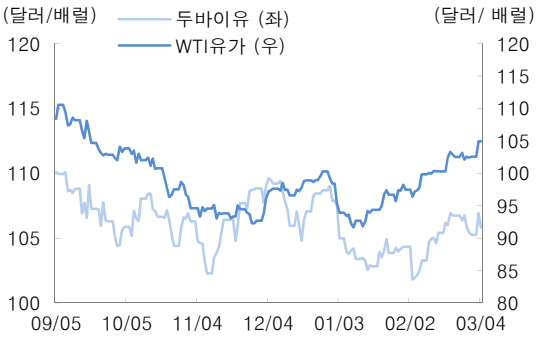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발틱 운임 지수(BDI, B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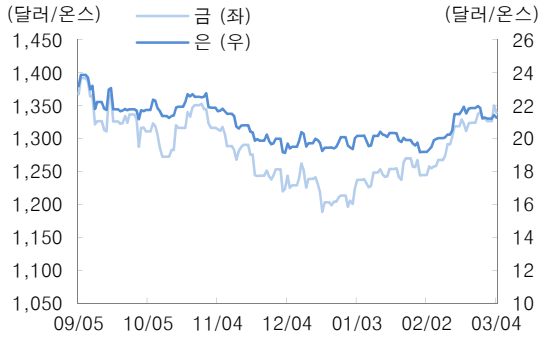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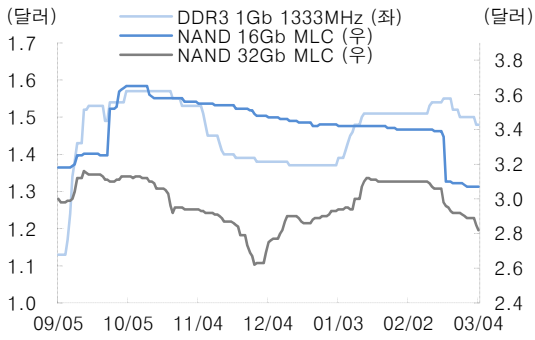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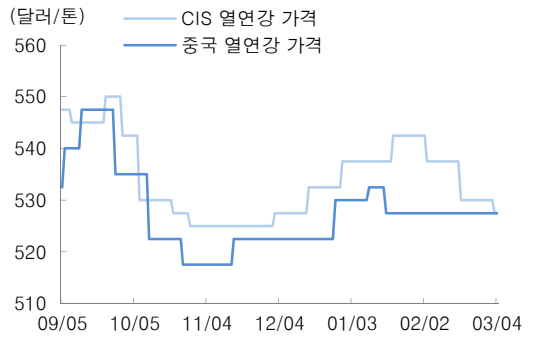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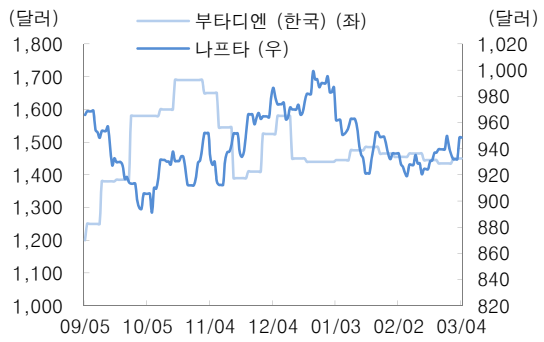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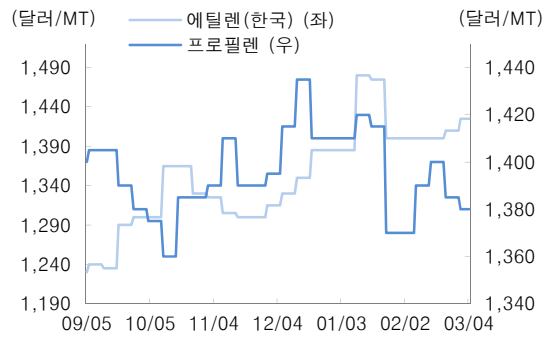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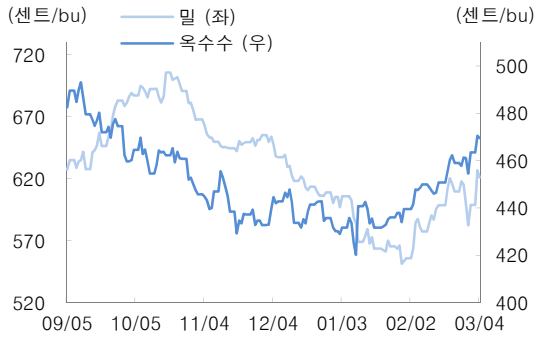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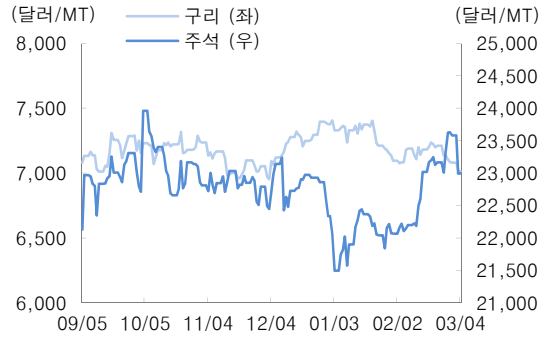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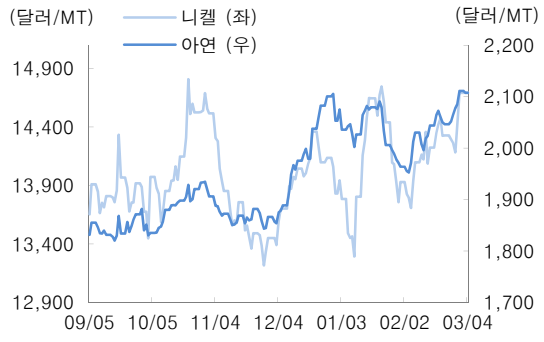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주석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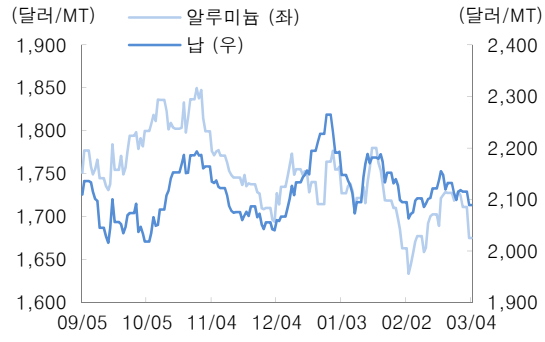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알루미늄,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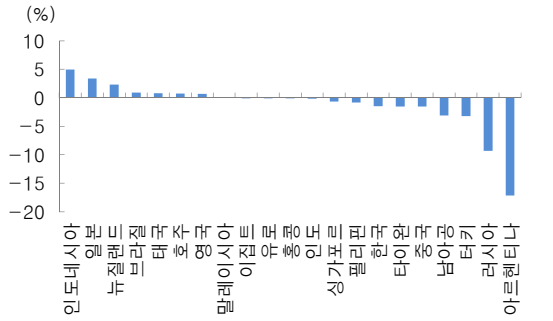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0원 오른 1073.50원에 장을 마감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019%p 상승한 2.911%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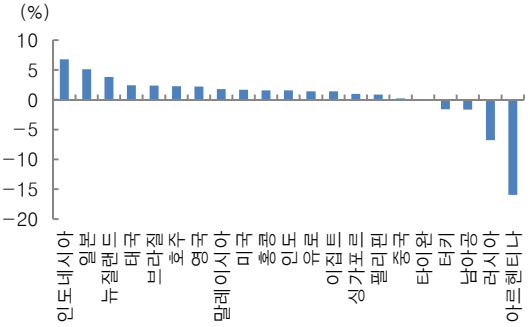
▶ 환 율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달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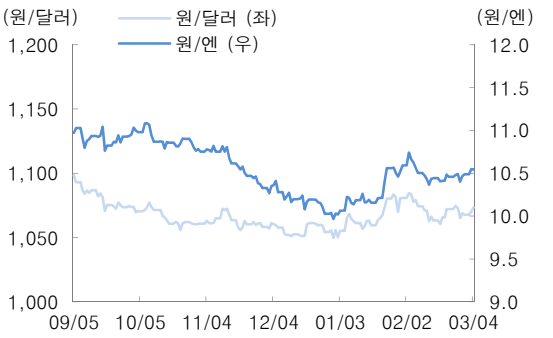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원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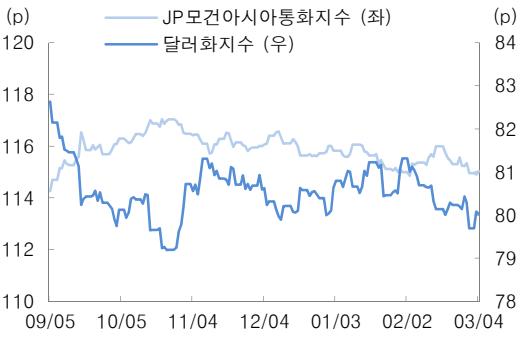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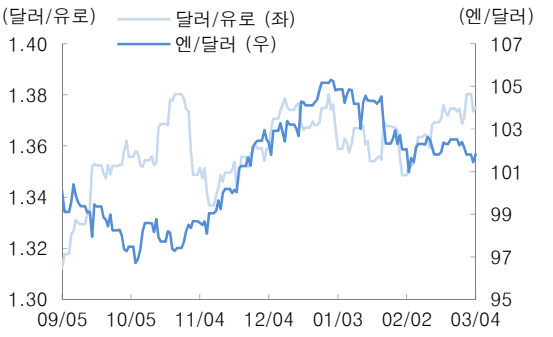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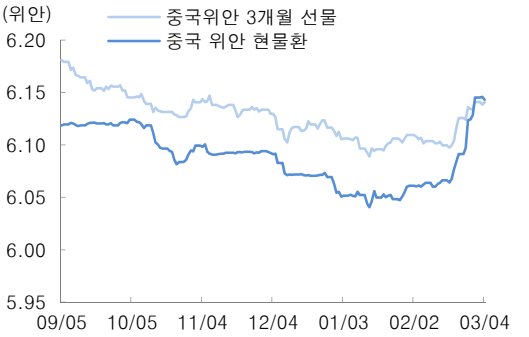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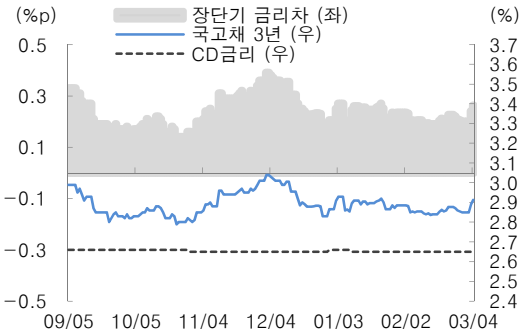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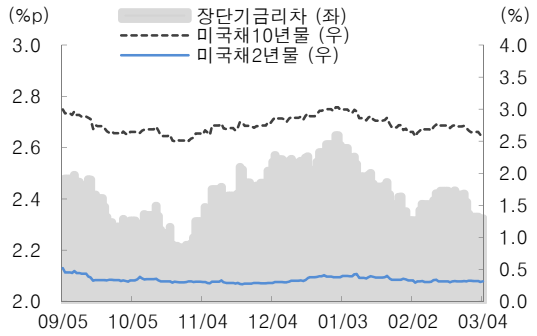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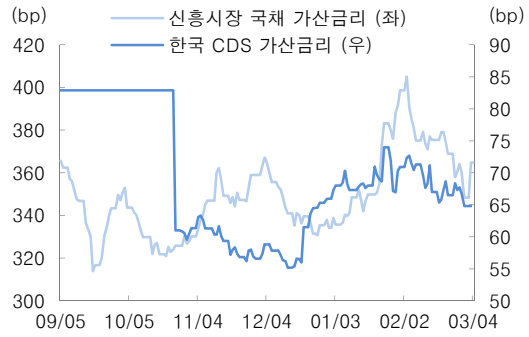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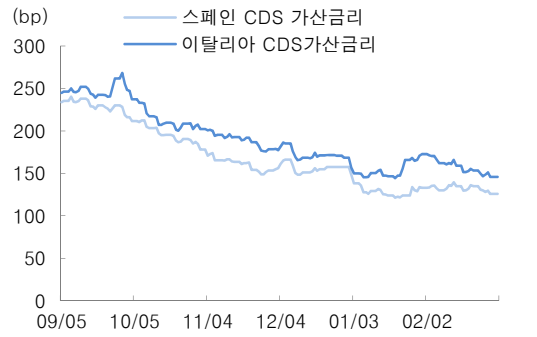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흥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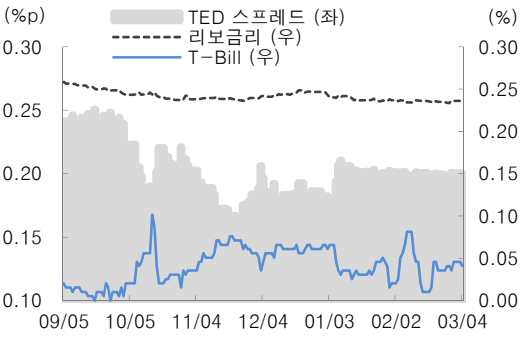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스페인, 이탈리아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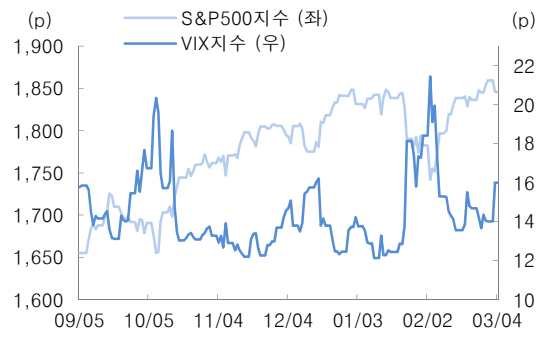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S&P500 지수와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3/04	3/03	2/28	2/27	2/26	03월 누적	14년 누적
개인	174.6	162.8	-32.2	-74.6	-167.8	337	1,724
외국인	-149.4	-75.9	233.8	140.8	61.0	-225	-2,592
기관계	-40.3	-91.4	-155.3	-47.4	109.6	-132	692
금융투자	-62.7	-88.7	-91.7	-78.4	-35.1	-151	-1,786
보험	0.7	15.3	1.0	42.5	44.0	16	253
투신	-9.5	-10.7	-23.9	-35.2	-26.9	-20	1,048
은행	-3.1	-2.6	-16.2	-19.4	-11.2	-6	-113
기타금융	0.8	-3.1	-7.0	1.2	0.6	-2	-40
연기금	39.8	-13.4	-25.4	56.7	136.3	26	1,346
사모펀드	-4.4	13.5	12.0	-4.6	-3.4	9	-68
국가지자체	-1.9	-1.6	-4.2	-10.1	5.4	-3	53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SK 하이닉스	14.5	현대모비스	28.3
삼성생명	12.9	POSCO	19.1
삼성전자	5.9	엔씨소프트	12.0
한국전력	5.3	기아차	11.8
삼성 SDI	5.1	현대글로비스	9.3
하나금융지주	5.0	현대중공업	9.2
NAVER	4.6	SK	9.1
오리온	4.5	현대차 2 우 B	8.3
NHN 엔터테인먼트	4.4	LG 화학	7.0
KB 금융	3.1	OCI	6.6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기아차	16.4	POSCO	20.5
엔씨소프트	13.8	삼성전자	19.1
현대모비스	10.1	현대중공업	17.2
현대차 2 우 B	7.8	KT	11.1
삼성전자우	6.8	롯데케미칼	8.2
GS 건설	6.8	삼성중공업	8.2
SK 네트웍스	6.0	두산중공업	7.0
LG 생활건강	5.8	삼성 SDI	6.5
현대글로비스	4.9	LG 화학	6.1
SK 텔레콤	4.5	CJ 대한통운	5.9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아이센스	8.1	서울반도체	52.9
CJ 오쇼핑	5.2	셀트리온	8.3
인터파크	2.8	다음	3.8
메디톡스	2.7	네오위즈게임즈	0.9
파라다이스	2.5	선데이토즈	0.8
에스에프에이	1.7	포스코 ICT	0.7
KG 모빌리언스	1.2	메디포스트	0.6
씨젠	1.2	실리콘웍스	0.6
루멘스	1.0	멜파스	0.5
유진테크	1.0	CJ E&M	0.5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서울반도체	61.7	CJ 오쇼핑	4.9
에스엠	5.1	아이센스	3.7
KG 모빌리언스	2.4	에스에프에이	2.5
KG 이니시스	2.2	한국정보인증	1.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8	포스코 ICT	1.2
CJ E&M	1.7	SM C&C	1.1
루멘스	1.6	고영	0.7
엔텔스	1.5	차바이오앤	0.7
인터파크 INT	1.5	삼보판지	0.7
다음	1.3	하이록코리아	0.6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NAVER	219.4	8.2	SK	66.1	4.7
삼성전자	142.6	-2.0	현대제철	50.8	-2.7
SK 하이닉스	84.5	-0.8	현대모비스	41.7	-2.7
현대차	76.8	2.3	삼성증권	34.1	1.6
한국전력	41.8	0.7	엔씨소프트	31.2	2.3
SK 이노베이션	40.8	-2.2	현대차2우B	30.2	2.5
KB 금융	39.6	-1.5	SK 텔레콤	29.5	-0.5
하나금융지주	36.3	-0.7	대우조선해양	29.2	-7.8
기업은행	33.6	-2.6	LG 디스플레이	19.1	-6.5
NHN 엔터테인먼트	23.0	12.6	제일기획	18.5	-5.6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기아차	86.0	2.4	현대제철	117.4	-2.7
SK	65.3	4.7	POSCO	91.6	-5.5
현대차	48.3	2.3	삼성중공업	90.1	-6.3
SK 텔레콤	36.0	-0.5	롯데케미칼	69.3	-5.8
GS 건설	35.3	-0.5	삼성전자	61.8	-2.0
삼성증권	34.3	1.6	삼성SDI	60.9	-3.8
현대차2우B	31.5	2.5	SK 하이닉스	50.9	-0.8
삼성전기	31.3	3.0	KT	43.9	-2.7
현대모비스	29.6	-2.7	NAVER	41.5	8.2
E1	29.2	-2.0	현대중공업	40.0	-5.3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3/04	3/03	2/28	2/27	2/26	03월 누적	14년 누적
한국	-159.8	-60.3	248.2	109.6	42.8	-220	-1,890
대만	-59.5	4.0	0.0	252.9	229.0	-55	388
인도	--	0.0	97.9	0.0	91.4	0	407
태국	--	35.3	25.4	-57.5	-36.2	35	-1,034
인도네시아	--	-30.8	44.6	13.0	-12.5	-31	826
필리핀	33.5	14.0	21.6	10.9	4.8	48	13
베트남	-6.3	-4.4	0.7	3.3	1.7	-11	108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탁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탁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